

⑨ 「……河南より山東諸地域では前述の龍門石窟諸像によつてこの北魏後半期様式が一應代表されることは勿論だが同じく石窟造像において、この正光様式を最も明瞭に具現したのは山東省黃石崖の諸像である。それらは山東における正光様式の隆盛を證する上に極めて注目すべきもので……」(鈴木・松原 東洋美術史要説「第四章北魏時代」條)

⑩ ① 關野 貞 著 「朝鮮の建築と藝術」第三章 百濟 第四節 彫刻」條
② 昭和十一年度古跡調査報告 「扶餘軍守里寺址發掘調査——發見遺物——」條 參照

⑪ 日本文化史大系 2、「彫刻——飛鳥時代——」條
鈴木・松原 著 前掲書「二〇二圖・金銅佛立像——正光五年——」參照

⑬ ① 黃壽永 「泰安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第十七・十八合輯)

② 韓國西海島嶼調查報告「新津島遺蹟」條參照

⑭ 黃壽永 前掲論文 參照

扶餘出土 半跏思惟石像

金 永 培

우리나라 佛教美術 作品中에서도 半跏思惟像의 優雅한 姿를 보는 사람마다 感嘆을 禁할 수 없는 存在라 하겠다. 이같은 造形美術 作品에 對하여 發達系譜를 考徵하기에 解放後 學者들의 關心事가 되어 온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 하겠는데 今般 偶然히 扶餘에서 半跏石像의 出現을 보게 되어 斯界學究에 좋은 資料가 되겠기에 簡單히 記錄을 남겨 두기로 한다.

一

이 石像이 發見된 곳은 扶餘郡 石城面 縣北里(月境里)部落의 前方丘陵地帶인데 現地를 調査하여 본 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扶餘에서 論山行 街道를 따라 約 六km쯤 가면 扶餘邑 陵山里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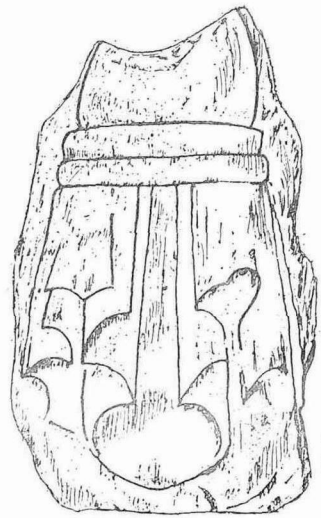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는데 여기에는 南쪽으로 山길을 四km쯤 가면 扶餘郡 石城面 縣北里 小地名(月境)部落에 다다른다. 이 洞里的 南方 洞口를 가로막고 있는 丘陵이 있는데 洞民의 말에 의하면 前에는 松林이 우거졌던 곳을 約三十年前에 開墾을 하여서



田地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所有者 張錫來氏가 春耕을 하다가 돌이 걸려서 파내었는데 거기서 이 石像이 發見된 것이다. 이 地點을 調査하여 본즉 寺址의 痕跡은 全혀 없고 돌을 파낸 곳을 보면 過去에 조그마한 建物址인 것인데 여기서 出土된 石材들을 보면 雜石이 約三、四馬車分이 나왔으며 人工을 加한 돌이 二枚가 있는데 이것은 디딤돌로 使用하였던 것 같고 조그마한 丸形礎石이 一個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建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雜石들은 建物의 基礎를 다지기 위하여 넣었던 것으로 推測되며, 이 石像도 雜石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 附近에서는 돌을 採取할 곳이 全혀 없고 거기서 東쪽으로 約一・五km쯤에 山이 있어서 돌을 주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山中에는 寺址가 있다는 말을 하여 주었다. 그러고 보면 山中에서 돌을 주위를 돌면서 石像도 같이 섞여 온 것이 分明하다 하겠고 發見地點에는 過去에 祠堂이나 또는 神堂같은 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추상되며 發見地點에서 約三百m가 당되는 곳에 平平한 丘陵이 있는데 이것을 「팽매이 山」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은 무슨 行事가 있을 때에 이곳에서 樂隊들이 奏樂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發見된 半跏像은 綠色이 도는 軟質의 石材인데 腰以下의 下半部만이



背面

石像(素描圖) 百濟半跏石像出土 石城面

後面에는 섬세한 衣紋이 全體를 덮었고 左右側面에는 各其一條의 瓔珞帶가 마련되어서 裝飾이 秀麗하며 後面에는 二段의 稜形腰帶를 두르고 그 위에 身部를 받들고 있게 하였다. 이 像은 臺座 위에 安置되었던 것으로 史料되며 前面에는 磨損關係로 若干의 衣文이 一部 남아 있을 것으로 仔細히 辨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 하겠다. 크기는 殘存總高가 二一cm이고 돌레가 四五cm이다. 衣文의 樣式과 手法는 圖面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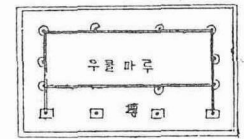
三

지금까지 扶餘에서 半跏石像이 發見된 것은 이번의 發見品을 合하여 三軀가 되었는데 其中에서 이 石像이 第一 큰 것으로 製作된 手法와 衣의 處理가 前에 發見된 滑石製小像과 다를 것이 없으며 다만 다른 것은 滑石像에는 腰帶에 蓮瓣을 돌렸으나 이번 石像은 二段의 稜形腰帶를 두른 것뿐이다. 우리나라 半跏思惟像의 始源의 發祥地가 百濟領域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때 이번 石像의 出現으로 百濟扶餘時代의 彫刻美가 더욱 生光할 것으로 믿으며 기쁘게 生覺하는 바이다.

南陽鄉校 大成殿

申 榮 勳

一九六七年 여름 무더위 햇볕 속 뜨거운 신작로를 걸어 鄉校에 닿았



南陽鄉校大成殿平面略圖 Scale=20:1

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어 農家의 자자분한 것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管理狀態나 現況은 아주 차참한 지경에 놓였다. 大成殿은 正面 三間에 側面 三間 長方形平面의 楹, 前面 도리간 한칸을 土床으로 하고 開放하였다.

平面은 正面全長 營造尺 三〇尺, 側面은 全長이 一五尺으로 正面은 御間과 來間을 等分하였고 側面은 夾間이 中央間보다 넓다.

前面 平柱는 營造尺으로 약 二尺 높이고 다듬어진 礎石 위에 놓인 圓柱, 柱高는 營造尺 七尺, 기둥 윗몸에 창방을 끼우고 큰 주두를 놓았다. 공포가 二翼工이어서 큰첨차가 작은 주두를 하나 더 얹었다.



다. 水原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水原鄉校보다 오래 된 것이라고 하였다. 水原鄉校는 水原城郭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이므로 이보다 앞선다면 一七七〇年—一八〇年代의 것으로 推定되어서 흥미를 느꼈고 기대를 하며 찾아 갔었다.